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⑱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르네상스 꽃 피운 메디치 가문의 보물 궁전

피렌체=정상필 EU특파원

개관 루브르 보다 200년이나 빨라
조토서 다 빈치·미켈란젤로까지
2세기 걸쳐 수집한 소장품 전시

인문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다. 르네상스 중에서도 미술로 주제를 국한한다면 피렌체를 빼놓을 수 없다. 피렌체 시내에 위치한 우피치 미술관(Galleria degli Uffizi)이 그 중심에 있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토스카나(Toscana) 공국을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의 소장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래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고, 강에서 멀지 않은 도시의 중심에는 궁(宮)이 있다. 그 궁은 도시가 누린 옛 영화를 기억하기 위해 미술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피렌체는 유럽의 유명 도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리셰를 넘지 않는다. 파리를 관통하는 세느 강을 지키고 선 루브르 박물관처럼, 피렌체의 아르노(Arno) 강에는 우피치 미술관이 있다. 여러모로 파리와 피렌체를 비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절의 피렌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루브르 박물관(1793년)이지만 개관 시기를 따진다면 우피치 미술관(1584년)에 200년이나 늦다.

우피치 미술관은 토스카나 공국의 초대 대공 코시모 1세(Cosimo I de Medici·1519~1574)가 지은 일종의 궁전이어서 우피치 궁으로도 불린다. 미술관의 역사도 이때부터다. 코시모 1세 때 시작된 공사는 그의 뒤를 이은 대공 프란체스코 1세(Francesco I de Medici·1541~1587) 때 끝난다. 'ㄷ'자 형태의 궁 꼭대기 층 일부에 조각과 회화 등 메디치가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일반에 공개한 것이 미술관의 시초다. 이 공간은 지금도 보존돼 있어 관람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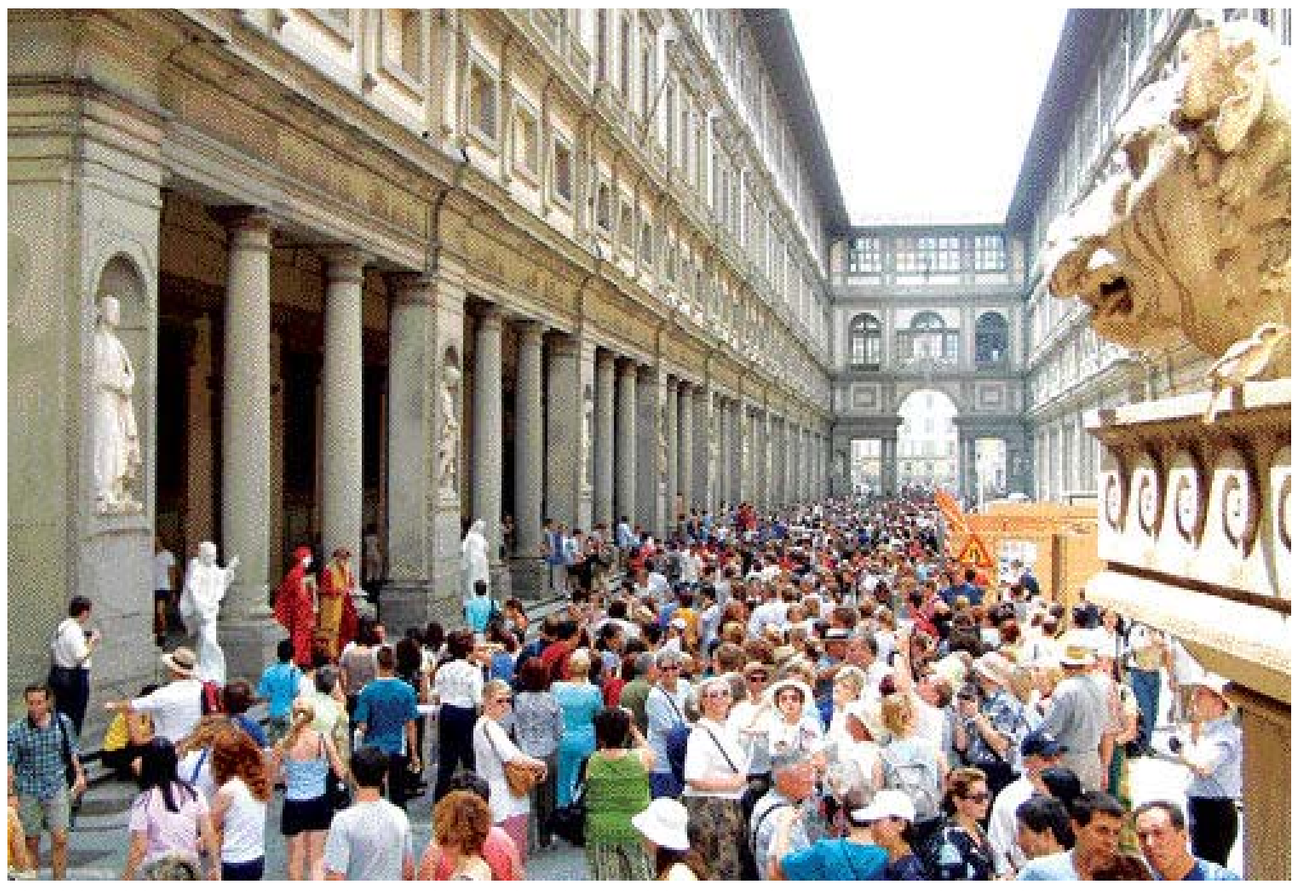
미술관 건물의 역사는 이렇지만, 소장품의 경우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메디치가가 권력과 부를 갖기 시작한 15세기 초반부터 미술품을 모으고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2세기가 넘도록 이어진 메디치가의 예술품 수집에 대한 역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들이 있어 이탈리아 미술이 꽃을 피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메디치가의 화려한 시절이 끝날 무렵인 18세기, 이들은 다음 왕조인 로레나(Lorena)가에 소장품을 온전히 넘긴다. 미술품들은 가문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피렌체 시민에게 보탬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소장품을 팔아 가문의 몰락을 지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산을 사유화하지 않고 헌납한 메디치가의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지금의 '국립' 우피치 미술관이 있을 수 있었다.

1층 일부와 2층 전체가 50여개 전시실로 나뉘어 운영된다. 치마부에(Cimabue·1240~1302), 두초(Duccio·1255~1319), 조토(Giotto·1267~1337)에서 보티첼리(Botticelli·1445~1510), 다 빈치(da Vinci·1452~1519), 미켈란젤로(Michelangelo·1475~1564), 라파엘로(Raffaello·1483~1520) 등 르네상스를 전후한 시기 이탈리아 출신 대가들의 작품은 물론, 17~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 회화, 플랑드르 화파들의 북부 유럽 르네상스 작품 등이 전시돼 있다. 보티첼리의 '봄의 여신'(1477)과 '비너스의 탄생'(1485),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1538), 다 빈치의 '수태고지(受胎告知)'(1475~1480), 미켈란젤로의 '도니 톤도'(1506) 등이 대표작이다.

미술관은 지난 2000년 끝난 대규모 리모델링 후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복권기금에 지원한 950만 유로로 1층에 매표소, 도서관, 물품 보관소, 서점 등을 새롭게 단장했으며, 국제공모를 통해 뽑은 건축가 6명이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했다. 2004~2006년 진행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 새로운 전시실 5개를 확보하는 등 2천~3천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camus@kwangju.co.kr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주도했던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의 전경. 미술관의 역사는 16~18세기 동안 피렌체를 지배했던 메디치가의 소장품에서 시작된다.

조각상이 전시된 우피치 미술관 복도. 50여개 전시실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빛낸 대가들의 회화가 주로 전시돼 있다.

교황만 3명 배출한 유럽 귀족가문…문화·예술 꾸준한 투자

■ 우피치 뿌리 메디치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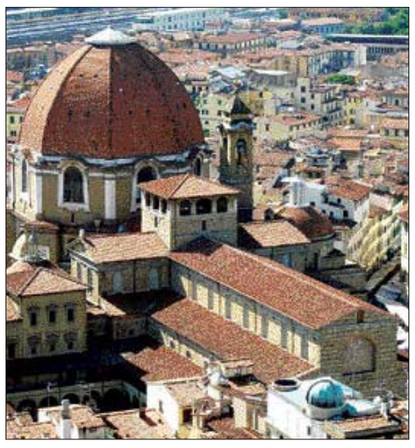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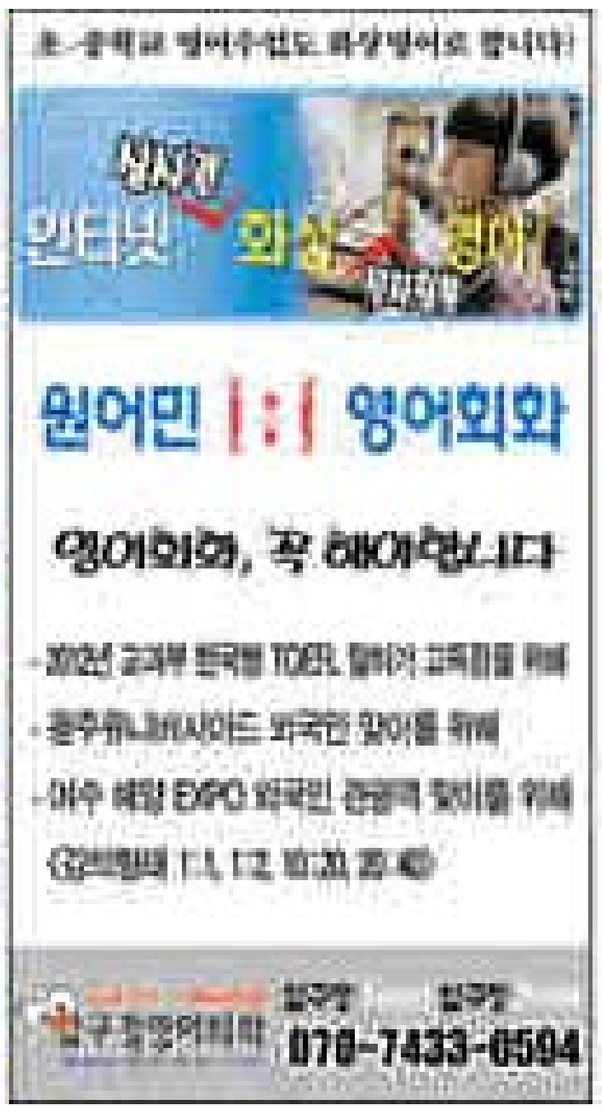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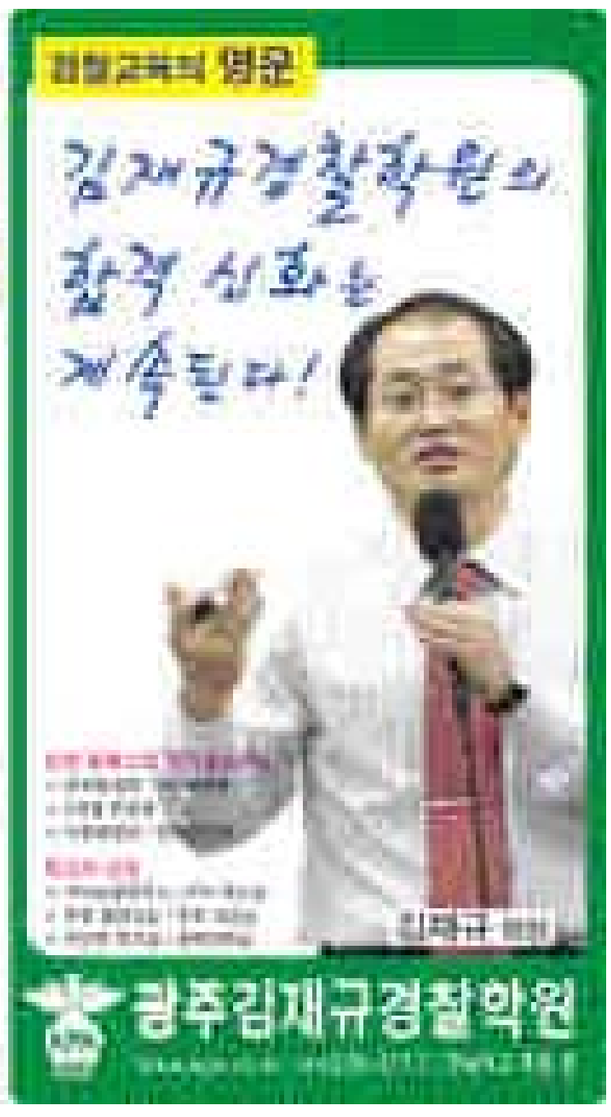
우피치 미술관의 뿌리인 메디치가(家)는 피렌체가 속해 있는 토스카나 주(州)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친 초대형 귀족가문으로 세기를 뛰어넘어 영화를 누렸다. 교황 셋에 토스카나 공국의 대공 일곱, 프랑스 왕비 둘.

메디치의 이름이 이탈리아 역사에 등장한 것은 14세기 말 코시모 일 메디치(1389~1464)부터다. 그는 금융업으로 큰 돈을 모은 집안의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메디치가는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는 물론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 내 10여개 도시에 은행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민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렌체 공화국의 국부(國父)라는 칭호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이 일반적인 귀족이나 부자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꾸준한 투자였다.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메디치(1449~1492)에서 가문의 영광은 정점을 이뤘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 등 그의 후원을 받은 예술가의 면면은 화려하다.

프랑스의 침입으로 한때 피렌체를 떠나야 했던 메디치가는 16세기 초 토스카나의 주도(州都)로 돌아와 선대의 명성을 이어간다. 이후 교황 레오 10세(1475~1523), 클레멘스 7세(1478~1534), 레오 11세(1535~1605) 등을 비롯한, 초대 토스카나 공국의 대공 코시모 1세(1519~1574),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4세의 부인인 카트린느(1519~1589), 마리(1573~1642) 등을 배출한다.

피렌체 시내의 산 로렌초(San Lornzo) 성당의 신성기실(新聖器室) 용도로 지어진 메디치 예배당(1521~1534)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메디치가 사람들의 시신이 묻혀 있다.



피렌체 두오모 성당 꼭대기에서 바라본 메디치 예배당 전경. 산 로렌초 성당의 부속 예배당으로 미켈란젤로가 설계했으며, 예술성 높은 조각, 벽화 등이 많아 현재는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다.